

음악과 사람 잇는 장성 ‘황룡강 봄꽃 힐링축제’ 열린다

내달 23-25일 사흘간 황룡강 일원서 가수 로이킴·이예준 등 봄 감성 자극 상권 활력 이벤트·버스킹 전국대회도

장성군은 매년 봄 황룡강 일대를 수놓았던 봄꽃 축제에서 나아가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신개념 축제를 선보인다.

기후 변화의 여파로 봄꽃 개화 시기 예측이 어려워지자, 획일화된 꽃 축제에서 벗어나 음악을 전면에 내세운 ‘힐링 축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상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는 구상이다.

28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5월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황룡강 일원에서 자연, 음악, 사람이 하나 되는 ‘장성 황룡강 음악힐링축제’를 최초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그동안 황룡강의 봄·가을을 대표했던 꽃 축제의 명성을 이어가면서도, 최신 트렌

드를 반영해 젊은 세대를 비롯한 전 연령층이 깊이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축제 첫날인 23일 오후 6시 황룡정원 주무대에서는 인기 가수 흥진영을 비롯해 박성운, 지창민, 정소라 등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흥을 한껏 끌어올리며, 축하 공연 직후에는 봄밤의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대형 불꽃놀이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튿날인 24일 저녁 열리는 핵심 행사 ‘뮤직페스티벌’은 감성 싱어송라이터 로이킴이 무대에 올라 특유의 설렘 가득한 보이스로 달콤한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여기에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보컬리스트 이예준, 싱어송라이터 공원, 5인조 밴드 캔트비블루, 2인조 인디밴드 언오피셜이 가세해 황룡강을 환상적인 라이브 공연장으로 탈바꿈시킨다.

관람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상권 활력을 이



장성군이 올해 획일화된 꽃 축제를 벗어나 음악과 사람이 하나되는 ‘장성 황룡강 음악힐링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장성 황룡강 봄축제 현장 모습. <장성군 제공>

끌 특화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5월 중 장성 관내에서 5만원 이상을 소비했거나, 올해 장성군에 1

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한 방문객에게는 객석 맨 앞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올해 장성 최초로 시도되는 ‘장성 버스킹 전국대회’도 축제 열기를 더한다.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20개 팀이 24일 그라운드골프장과 서삼교 일원에서 본선을 치르며, 최종 10개 팀이 25일 오후 5시 황룡정원 주무대 결선 무대에서 상급과 가을 축제 참여 특전을 놓고 격돌한다.

이밖에 장성대교 아래에서는 수상자전거와 패밀리로트 등 수상 레저와 소원을 적는 ‘소원브릿지’, 3시간 이상 체류 시 선물을 증정하는 ‘3시간 머물장’ 이벤트가 열린다

황미르랜드에는 인디언 텐트 아래서 독서를 즐기는 ‘북캠프닉존’과 황도 맨발 걷기 길, 호숫물고기 등이 조성돼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는 진정한 힐링을 선사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황룡강의 봄 풍경과 감미로운 음악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번 음악힐링축제에서 잊지 못할 일상 재충전의 시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여수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친환경 전환 ‘가속’

총 315대 지원 4·5등급 대상 5등급 차량 6년간 67% 급감 대기질 개선 정책 효과 ‘뚜렷’

여수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차량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2026년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심사해 최근 총 315대의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등급별로는 4등급 209대, 5등급 104대,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2대 등이다.

기본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5등급은 100%, 4등급은 70%, 3.5t 이상은 폐차 시 전액 지원된다.

폐차 이후 신차 구매 시 최대 200% 범위에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기준이 일부 개편돼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이 제외된다.

반면 4등급 경유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무공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한정해 차량 가격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중고차 성능 점검 등을 통해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뒤 폐차를 진행해야 하

며, 말소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은 4개월 이내 신청이 필수다.

시의 꾸준한 저감 사업 추진으로 여수 지역 5등급 노후 차량은 지난 2020년 1만여대에서 올해 3천500여대로 약 67%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1등급 친환경 차량은 2만5천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차량 확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환경정책”이라며 “도심 대기질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고흥 팔영산 편백 차유의 숲에서 유아숲 스포츠(체조) 활동 모습. <고흥군 제공>

고흥군, 맞춤형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호응

팔영산·마복산...11월까지 운영

고흥군은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교감하며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팔영산 편백 차유의숲과 마복산 유아숲체험원 등 우수한 산림 환경을 갖춘 공간에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아이들이 숲을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 중심의 생태 교육으로 계절별 숲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해 다채롭게 꾸려졌다.

봄에는 새싹과 꽃 관찰로 생명의 변화를 이해하고, 여름에는 숲속 곤충 탐색, 가을에는 낙엽과 열매를 활용한 오감 체험 놀이가 이어진다.

특히 전문 유아숲 지도사와 숲해설가가 동행

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생태 놀이와 신체 활동을 이끌며 정서 안정과 창의성을 길러준다.

상반기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이며, 하반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오는 6월 중 관내 유아 교육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유아숲 교육은 아이들이 숲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장흥군, 환자 맞춤 돌봄 ‘재가의료급여’ 확대

장흥군은 28일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재가의료급여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들이 병원이 아닌 익숙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군은 사전 가정방문과 심층 사례회의를 거쳐 여건을 파악한 뒤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맞춤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밀반찬 제공을 비롯해 세탁기·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과 침대·장롱 등 기본 가구까지 폭넓게 이뤄지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대상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현장의 만족도도 높다.군은 지난 28일 수급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물품 설치 현황과 이용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퇴원 환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밀착 상담을 통해 제도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욱기자

담양군 ‘대숲맑은 조기햅쌀’ 첫 모내기

금성면 42ha 단지 8월 하순 수확

담양군이 추석 명절 대목을 겨냥한 명품 ‘대숲맑은 조기햅쌀’의 올해 첫 모내기를 시작했다.

28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남 금성면 지삼용지 농가에서 첫 이앙 작업을 진행하며 42ha(63농가) 규모의 조기햅쌀단지조성을 본격화했다. <사진> 올해 재배하는 벼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최고품질의 ‘해담쌀’로, 쌀알이 맑고 밥맛이 뛰어나 소비자 선호도가 높으며, 조기 수확에 최적화된 품종이다.

군은 금성농협 공동육묘장을 통해 탄실한 모를 길러냈으며, 농가 부담 완화와 햅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육묘 구매비 2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조기햅쌀 단지에서 약 20t의 쌀을 생산해 7억여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확한 햅쌀은 오는 8월 하순부터 산물벼로 수매 후 가공 절차를 거쳐 추석 명절 이전에 4·1



0kg 단위로 전국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담양=정성균 기자>

이번만 농업유통과장은 “조기햅쌀은 수확 시기가 빨라 기상 재해를 피할 수 있고, 명절 대목을 선점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며 “담양 쌀이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성균 기자

화순군 지역상품권 할인율·구매 한도 조정

내달 지류 10% ↓·모바일 12% 유지

화순군은 지역 화폐 조기 소진 예방하고 보다 많은 군민에게 고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상품권 할인율과 구매·보유 한도를 조정한다.

28일 화순군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지류형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2%에서 10%로 하향 조정되며,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한 12%의 특별 할인율을 유지한다.

월 통합 구매 한도는 종전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되며, 이 가운데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 역시 기존 150만원

에서 70만원으로 낮아지며, 상품권 보유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잔액을 우선 소진해야만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른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앱인 ‘cha k’을 통해 사전 안내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조정은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다수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상품권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



곡성군 ‘구곡순담 100세 잔치’ 행사 준비

郡 의장군 선정...실무회의 개최

곡성군이 장수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지역 간 화합을 다지는 ‘제15회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 100세 잔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28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제2차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열고 오는 9월2일 열리는 100세 잔치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사진>

4개 군 실무진은 프로그램 구성과 역할 분담, 안전관리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100세 잔치는 4개 지자체가 윤번제로 의장군을 맡아 추진하는 대표 장수벨트 행사로, 곡성군이 이번 행사를 주관한다.

행사는 9월2일 곡성문화체육관에서 ‘인생을 살아보니, 웃음이 보약이로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장수기원 마당극, 장수사진 전시를 비롯해 어르신 퍼포먼스·게이트볼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곡성=김영철기자